

우수상 수상작: 잘 할수 있지.

"왜. 지금 바빠. "

"아빠.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파."

이제 갓 대학생이 된 큰딸이 저녁 7시가 넘어서 전화가 걸려왔다. 월 말이라서 일이 바쁜 난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어릴 적부터 가끔씩 배 아프다는 말을 자주해서 그 날도 별 일 아닌 줄 알고, 대꾸하고선, 너무 아프면 병원 응급실에 혼자서 먼저 가 라고 했다.

8시 넘어 퇴근길에 응급실에 도착하니, 작은 얼굴이 하얗고 노랗게 질린 큰 딸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가느다란 팔목에는 링거병 주사 바늘을 꽂고 있었다.

"아버님 되시나요? 자궁에 혹이 생겨서 내일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소 몸무게가 많이 늘었다고, 다이어트한다고 늘 소식하던 아이였다. 보기에든 복부만 조금 나왔을 뿐 몸은 야위어 보이는 체형이다.

링거를 다 맞은 후 응급실에서 나서면서, 배가 너무 아프니 택시를 타면 안되냐고 물었다.

"지하철 두 정거장인데, 그냥 지하철 타자. 괜찮지?"

아픈 배를 움켜 잡고, 지하철을 타고 선 집으로 왔다. 지금도 그 날은 평생 잊지 못할, 후회하는 날로 기억하고 있다. 큰 병원은 예약도 힘들어 몇달을 기다려야 해서 여성 전문 병원에 급한 대로 먼저 가보기로 했다.

난 직장 일로 바빠서 엄마가 대신 보호자로 같이 가기로 했다.

"여보. 자궁에 종양이 생겼데,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암 일 수도 있다는데."

"야. 그런 소리 하지마. 재수 없다. 별일 아닐꺼야. 갑자기 무슨 암이야."

다음날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후에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너무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럴리가 없다. 암이라니'

난 속으로 생각했다.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다. 자궁 난소암 3기쯤 의심된다고고 의사가 담담히 말했다. 다시 큰 병원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대학 신입생이 되어서 설레임 가득안고 성인 첫 발을 내 디는 5월인데,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운 큰 딸에게 뭐라 말해야 하나. 긴 생머리를 한껏 나풀거리면서, 학교를 가던 아이에게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어떻게 말해야 하나.

"서울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데, 일단 퇴원하자."

서울 큰 병원에 당장 예약을 하고, 입원 수속을 했다. 다행히도 딸아이는 혼자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 머리를 깎고 왔다. 딸 아이 몰래 이발소 바리깡을 준비한 나는 속으로 기특하다고 생각했다. 미용실에 뭐라 말했을까?

동그란 민 머리를 볼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렀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때면, 이마에 땀을 닦는 척 눈물을 훔쳤다.

"아빠 괜찮아. 나 잘 할 수 있어."

난 대답도 못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래" 라고 겨우 말했다. 서울 가는 기차에는 평소 몰랐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군데 군데 앉아 있는 많은 암 환자들이었다. 내 가족이 암 환자가 되니, 비로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 밝은 미소와 음악을 듣던 딸 아이는 멍하니 기차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힘들지만, 잘 치료 받으면, 괜찮을거야를 몇 번씩 스스로 다짐했다. 서울 병원에선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방사선 치료를 7차 정도 하고, 경과를 두고 보자고 했다. 하필 코로나 시국이라서 보호자 없이 오로지 혼자서 견뎌야 했다. 일주일을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할 때 퇴원 수속을 하고 같이 집으로 오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었다. 3차 정도부터는 너무 힘들어서해서, 퇴원 후에 바로 기차를 타지 못하고 근처 호텔에서 3일 정도를 쉬었다. 입원실에서 조금 더 쉬고 싶지만, 다른 환자들도 급하긴 마찬가지였다. 머리카락들이 산산히 부서졌고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 졌고, 얼굴 빛깔이 점차 검게 변해 갔다. 팔 다리도 너무 가늘어 졌다.

"아빠 파스타 먹고 싶어."

"그래 먹자."

집에와서 처음 먹고 싶다고 한 말이 너무 반가웠다. 식당에서 음식이 채 나오기도 전에 아이가 갑자기 토를 했다. 항암 치료의 후유증이였다. 난 그래도 햇빛을 보면서 걸어야 한다고 잘 먹어야 한다고 했다. 건강해야 항암 치료도 잘 견딜 수 있다고 말이다. 나도 힘들지만, 온 가족이 함께 견뎌내야 했다. 매번 항암 치료를 마치면, 퇴원 수속을 하고 병실에 올라 아이를 만났다.

"아빠 알았어. 다시 걸어볼께."

퇴원할 때마다 계단 난간을 잡고 천천히 걷다가 다시 앉았다가 하는 딸을 보면서, 내 몸이 떨렸다. 눈에는 자꾸 눈물이 흘러, 쳐다 볼 수조차 없었다. 모자를 쓴 모습이 전형적인 암 환자다.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는 어른들은 너무 애기가 왔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아가 힘내."

'아가'라는 말에 다시 울컥 했다. 큰딸은 살림 밑천이라는 말처럼 정말 든든한 아이였다.

철이 늦게 들기를 바랬지만, 중학생부터 철이 들기 시작해서, 말 안해도 빨래, 설거지 등 집안 살림도 돕고, 누군가는 힘들다는 사춘기도 모르게 지나갔다. 부모에게는 너무 착한 딸이지만 그녀는 속으로 많이 힘들었나 보다 생각하니, 더 안타까워질 지경이다.

이젠 방송을 보면 항암 극복한 연예인과 암환자들이 자주 보였다. 특히 같은 병명인 경우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성암이지만, 아주 자세히 보게 되고, 항암에 좋은 음식과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메모하고 암기하는 습관이 생겼다.

온 가족이 큰 아이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건강할 때는 온갖 걱정거리가 넘쳤지만, 막상 자녀가 암 치료로 건강을 잃게 되니 수백 만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오직 건강을 찾기만을 기도하게 되

었다. 한 달에 한번 서울로 올라가기를 몇 개월 한 후에야 드디어 항암 치료는 마무리했다.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는 뭐라고 감사를 해야 할지 표현할 말조차 없었다.

"몸조리 잘 하시고, 3개월마다 와서 검사 받으세요."

항암 치료만 끝났다고 다 된 것도 아니었다. 앞으로 5년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도 견디기 힘든 항암 치료를 잘 견딘 큰딸이 너무 대견했다. 매 항암 치료 후에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아이가 안쓰러웠는데, 그래도 무사히 항암 치료를 마쳐서 뭔가 큰 일을 해 낸 느낌이었다. 몸이 회복되는 대로, 학교도 다시 복학한다고 했다. 아직은 친구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가 까까머리에 쓸 가발도 미리 준비했다. 항암 치료를 처음 받고 선 침대에 떨어진 매트에 가득한 머리카락을 진공 청소기를 치우면서, 이렇게 침대에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자는데 불편했을텐데, 왜 아무 말 안 하는지 울컥 한 날들이 있었지만, 그 시절도 다 지나갔다. 이제 머리카락이 얼릉 자라기만을 기다린다. 가발을 쓰고 전신 거울을 이리 저리 보는 딸 아이를 볼 때면, 그냥 가슴이 짠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

뭐라고 할 말은 많지만, 잔소리가 행여나 스트레스를 줄까 바 말을 아끼고 아껴 즐였다. 이제 대학교 3학년이니 3년이 조금 지나고 있다. 물론 아직도 3개월마다 서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있다. 건강한 음식으로 가려서 먹고, 툴툴 운동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완치된 것이 아니라서,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가득 안고 살고 있다. 병원에서 검사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매 순간이 떨림의 연속이다. 아마도 완치가 되어도 건강 검진을 받을 때마다 그럴 것 같다.

지금도 늘 딸아이를 볼 때마다 두렵고 기쁘고 안쓰럽고 불안하고 온갖 감정에 휩싸인다. 평소 무뚝뚝한 아빠지만, 문자라도 자주 하고 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항암 치료를 견딘 딸아이보다 힘들까 싶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덕분에 하루 하루 감사한 삶을 살게 되고, 평소에 느끼지 못한 작은 것에 소중한 행복을 느끼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지내고 있다.

"우리 힘들지만, 가족이잖아. 언제나 든든한 가족이 곁에 있으니, 조금만 더 참고 행복한 날이 올 때까지 잘 견디자. 할 수 있지."